

전국 117개 대학 학군단 임관식

전국 117개 대학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은 3월2일 각 학교에서 학군장교 임관식을 거행했다. 행사를 통해 소위 계급장을 받은 장교는 육군 3578명, 해군 138명, 공군 134명, 해병대 121명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성신여대 학군단 임관식을, 육·해·공군참모차장은 대표 학군단인 원광대, 한국해양대, 한국항공대 임관식을 주관했다. 학군장교들은 전국 117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 1·2학년 때 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3·4학년 동안 전공 학위교육, 군사학·군사훈련, 임관종합평가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임관 자격을 부여받았다.//

24개 대학, 재학생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올해부터 서울대학교에 다니다 입대한 장병들은 대학이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학점을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와 서울대학교는 1월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제도는 2017년 11월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군 복무 중 사회봉사·인성교육·리더십 등의 경험을 각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12개 대학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해 12개 대학이 참여해 총 24개 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군 복무 중인 재학생

은 복학 후 학점 취득의 부담을 덜고, 학교는 모교에 대한 재학생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병사들은 군 복무 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로 최대 12~15학점 취득이 가능해 복학 후 학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 장병들의 군 복무 가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현황(가나다순)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인교대, 경기과기대, 광주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신대, 배재대, 서울대, 선린대, 송원대, 수성대, 여주대, 원광대, 인하공전, 전남과학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국가보훈처, 캐나다 참전용사에 '감사 마음'

국가보훈처는 2월19일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박상득 보훈처장과 정부 대표단이 18일(현지시간) 필리 리도 요양센터를 찾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단(KWVMF)에서 존 킬리 회장을 만나 '추모의 벽' 건립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설계비 20억 원을 전달했다. 20일에는 미국 보훈부 장관과 6·25전쟁 70주년 사업 및 국제보훈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21일에는 버지니아주(州) 관티코 국립해병대박물관에 건립된 '장진호전투기념비'와 '알링턴 국립묘지'를 헌화·참배했다.//

박 처장은 이날 캐나다 보훈부 차관과 함께 요양센터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이곳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30여 명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 뒤 '평화의 사도 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수여했다. 박 처장과 정부 대표단은 19일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

군 복지시설 신분 인증 '스마트폰으로'

국군복지단은 2월13일 "군 마트, 휴양시설 등 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군복지포털 모바일 앱 안에 국방가족 모바일 증명시스템을 탑재했다"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분증 및 증명서류 없이도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규정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저 모바일 앱에 자신의 사진을 등록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근 군 마트

이에 복지단은 기존의 국군복지포털 모바일 앱에 사진 등록 및 인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군 마트 및 휴양시설 이용 시 앱에 등록된 인증화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분확인을 대체한다.

이용 방법은 모바일 앱에 사진을 등록하고 마트를 방문해 인증을 받으면 된다. 먼

를 방문해 직원에게 인증을 받는다. 첫 회 인증만 받으면 이후에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없이, 앱에 등록된 사진만 직원에게 보여주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의 가족인 경우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 접속해 가족 사항을 등록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을 등록한 후 신분증과 대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군 마트를 방문, 직원을 통해 인증받으면 된다. 복지단은 이용 대상자들이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간을 정해 차례대로 대상자 인증을 마칠 예정이다.//

독립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7곳 국가관리 받는다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가 차원의 상시 점검과 훼손 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은 소유자 관리자,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준하는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산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 57곳 합동묘역이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훈처는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생긴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 감면

군 복무 중 생긴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게 됐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3월24일 "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군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239개)은 중앙보훈병원을 포함해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가 감면됐다. 법률 개정안 수혜 대상은 현역병 복무 중 발생·악화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중증·난치성 질환은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다.

중증·난치성 질병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치료로 민원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24일 공포된 개정 법률안은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軍 영창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으로 대체

구한말 고종 시대부터 유지돼온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사라진다.

하는 것으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특히 준비·인권·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1월 10일 군 징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軍)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했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제도다. 단축 일수는 회당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훈계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상 '영창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영창제도를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훈련

유엔 참전용사 예우 법적 근거 마련

6·2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 선양과 참전국 우호증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엔 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

국가보훈처는 3월6일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상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현역 군인은 앞으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3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다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

원들은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이들의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받을 권리는 전역·퇴직일 다음 날이 속한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2020년 9월 25일이다.//

가슴속 열정의 화산에 불을 지피라

이영하 (예 중장, 공사22기,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열정은 성공의 원동력이다.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 실패와 좌절속에서 자칫 버려지기 쉬운 원래의 꿈을 목표로 도달할 때까지 간직해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열정에서 온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무모하리만치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대단치도 않은 난관 앞에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열정이라 몇몇 사람에게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인 것일까? 아니면 누구나 가슴속에 갖고 있지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폭발하는 화산과도 같은 것일까?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분명 열정의 화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 가슴 저 밑바닥에서 미동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언젠가 계기가 주어지면 세상과 자신을 뒤바꾸는 위력의 열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야말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매력적인 동인이다. 게임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을 볼 때 하면 할 수록 재미있는데 안 빠져들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이고 싶은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일과 즐거움이 일체인 삶, 아마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이제 일과 즐거움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즐거움이 있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만족이 점점 중시되고 최근에는 평생고객화를 추구하는 오늘날 추세에 비춰볼 때, 먼저 나부터 내일을 미치도록 좋아해야 하고, 좋아하는 내 일이 진정 내가 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무슨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겠다.

그래야만 사회의 각 분야에서 최상급의 전문인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를 올려다 봐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열정에 불타는 시절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단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열정을 갖는다.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꾸준히 열정에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종족으로 여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게 갑질을 하지는 않지만 차이를 두고 차별한다.

봉 감독은 이런 차이를 '냄새'로 상징화하고 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우리와는 뭔가 다른 냄새가 난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듣던 "노는 물이 다르다"보다 훨씬 모욕적이며 정신적 폭력이다.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정글에서 야생동물들이 냄새로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체제는 우리에게 물질만능주의와 부의 계급화 같은 사회문제를 남겨줬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것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부의 계층화문제,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의 쇠퇴, 정신건강의 위기 등은 인류 공통의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생이나 공생이나, 지금은 이것이 문제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항공우주군'으로 비상하자!

안재봉 (예 준장, 2사5기, 본회 부회장)



공군은 2020년 3월 4일, 공군사관학교 제68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Air Force QUANTUM 5.0』이라는 미래 공군력 발전에 관한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공군창군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공군의 전력발전개념으로서 우주, 사이버·전자기파, 지휘통제체계, 전력체계, 인프라(조직, 인력)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Space Odyssey Quantum Project」로서 하늘을 넘어 우주로 작전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현존 및 미래 잠재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도 동시 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주작전능력을 구비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창군 70주년을 맞은 선진정예공군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구상이라 생각한다.

일찍이 공군은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91년 걸프전 이후 현대전 교훈을 바탕으로 항공우주력의 구비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8년에 공군전투발전단에 우주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한 후, 2002년에 '우주무기과'를 편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우주무기과'를 정책부서인 공군본부 기획참모부 '우주발전과'로 승격시켜 편성하였다.

2014년 국방부 지침에 따라 '우주발전과'를 연구분석평가단(현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로 편제 조정하였고, 2019년에는 '우주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비전(Vision) 측면에서는 1998년에 『대한공군 2030』이라는 비전서를 발간하였고, 같은 해에 '하늘로 우주로'라는 구호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 『공군비전 2025』, 2008년에는 『공군비전』(팸플릿)을 발간하였다.

공군창군 60주년인 2009년에는 『공군비전 2030』을 발간하면서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교리적으로는 2007년에 『공군기본교리』 제8차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사용해 왔던 '공군력'이라는 용어를 '항공우주력'으로 확대, 대체함으로써 '항공우주군'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력을 구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지금은 항공우주전투발전단에 '우주정보상황실'(2015년 개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준이며, 우주감시를 위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공군은 러시아 유인우주선 '소유즈 TMA-11호' 우주비행(2008년 4월)을 위한 우주비행사 선발시, 공군출신이 아닌 이소연 씨가 선발되자, 미래의 우주비행사 또는 우주인 후보를 양성한다는 목표하에 2008년에 우주전문인력을 최초로 선발하였고, 2009년에 우주직위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세계 주요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우주군 창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 4강의 우주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0일, 2020회계년도 국방관련 예산 활용방안을 담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우주군 창설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초대 우주사령관으로 존 레이먼드 공군대장을 공식 지명하였으며, 우주군의 첫 해 예산은 4천만 달러(2020회계년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도 창군 초기에는 200명으로 시작하나, 추후에 현재 16,000명 수준인 공군 우주사령부 인원 중에서 약 5,000~6,000명이 우주군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항공우주일체(空天一體)를 지향하면서 일관되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며, 우주무기화와 우주군비경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2007년에 자국의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파괴하는데 성공하였고, 2013년에는 정지궤도인 고도 36,000km 상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2019년 9월 아베 총리가 우주공간에서 방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의 항공자위대를 미래에는 '항공우주자위대'로 진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5월에 일본은 2020년 4월 항공자위대에 우주영역전문부대를 70명 규모로 편성하여 2023회계년도부터 운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15년 8월에 공군과 항공우주방위군을 통합하여 항공우주군(Vozdushno-Kosmicheskiye Sily, VKS)을 출범시켰다.

공군이 지향하는 '항공우주군'은 주변 4강이 지향하는 광의의 우주군 개념이 아니라 현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의 최소한의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는 개념이다.

공군이 창군 100주년을 맞는 2049년에 '항공우주군'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가장 시급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독립문에서] 기생이나 공생이나, 그것이 문제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본회 정책자문위원)



"인간이 공생에 실패하는 모습을 비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생의 의미로 다루고 싶었다."

아카데미상을 네 개나 차지한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제목에 이끌려 '기생'을 생각하지만 봉 감독은 작품을 통해 '공생'을 숙고했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다.

기생은 숙주가 있어야 한다. 기생생물은 숙주 속에 파고들어 영양분을 빨아먹고 산다. 기생생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숙주에게는 도움될 일은 거의 없고 손해가 될 뿐이다.

영화 <기생충>은 부잣집을 숙주로 그 집에 온 가족이 파고들어와 빨아먹고 사는 가난한 집을 기생충으로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화나 문학작품에서는 욕심 많고 포악한 부자에게 선량한 빈자가 시달리다 못해 폭동으로 상황을 뒤집는 경우가 많았다. 로빈후드의 이야기가 그렇고 임궽정 이야기가 그렇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부자 가족은 악독한 면도 없고 갑질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잘 믿어 속아 넘어가는 순진함까

지 있다. 반면에 가난한 가족은 온갖 속임수를 써서 부잣집에 파고든다. 속임수가 성공할 때마다 쾌재를 부르는 배우들의 표정과 표현이 절묘하다. "부자들은 원래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필요 없는 거야"라는 대사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이들에게 약간씩 뜯어내는 것은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와 도덕불감증이 들어 있다.

이처럼 미묘한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오래 지속될 것 같았던 두 가족의 공존은 왜 깨지게 됐을까. 이들은 기생의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공생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기생은 오직 자신의 생존이 중요한 반면 공생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공생이 가능하다.

영화에서 두 가족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뿐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뜯어먹자'는 쪽과 '고용한 사람은 부려 먹다가 내보내면 된다'는 쪽으로 나뉜다.

부잣집 주인은 착취하거나 갑질은 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 터놓고 지낼 인간적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사는 집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른

먼저,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국방백서』, 『우주작전교리』 등을 정비하여 우주력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에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항공작전’이라는 용어를 ‘항공 및 우주작전’ 또는 ‘항공우주작전’으로 개정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우주력의 구비와 함께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한 『2018 국방백서』 56쪽에 보면 고유명사인 ‘항공우주력’ 또는 ‘우주력’이라는 용어 대신 ‘국방우주력’으로 표기하고, 영문판에서는 ‘Space Defense Capabilities’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우주력(Space Power)’ 또는 ‘항공우주력(Air and Space Power)’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공군의 전유물이 될 것을 우려하여 특정군 중심의 국방부체제 하에서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논리라면,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우주력’은 ‘기상우주력’, 해양수산부에서 사용하는 우주력은 ‘해양수산우주력’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우주력’은 그 자체가 고유명사이다. 따라서 이처럼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노력과 우주무기의 국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군이 수행해야 할 미래의 우주작전을 공군작전교리에 명시함으로써 우주력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우주력은 육·해·공군이 모두 구비할 수 있지만, 우주작전 수행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공군에 의해 통제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중공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간관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항공우주

작전의 특성상 지휘통제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군의 우주력발전계획과 「국가우주개발기본계획」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수립되어야 한다.

우주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기술, 국가적 노력이 결집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군의 우주력발전계획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국가우주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방예산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의 예산으로 국가차원의 우주개발계획과 상호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 우주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군은 일찍부터 항공우주 관련 석·박사를 양성해 왔으나,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국가차원의 우주전문인력들과 연대하여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전문분야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선발된 우주전문직위와 우주인 후보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2019년 9월에 신설한 위성감시통제대를 기반으로 중·장기 우주력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주작전전대, 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사령부로 확대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군 창군 100주년을 지향하면서 수립한 「Space Odyssey Quantum Project」는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이라 생각한다.

이 계획이 구현된다면, 우리 공군은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초소형정찰위성,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조기경보위성체계, 지향성에너지무기 및 대(對)위성무기 등 다양한 우주력을 운용하는 명실상부한 ‘항공우주군’으로 비상(飛翔)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이다. 음식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다섯째, 금연과 금주는 면역력을 높인다. 하루 평균 4~5잔 술을 마신 사람은 각종 암세포와 싸우는 백혈구 수치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현저히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섯째, 비타민D가 풍부한 햇볕을 쬐야 한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분인 비타민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이다. 하루 평균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1일 필요량의 비타민D를 보충할 수 있다.

일곱째,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오렌지, 레몬, 귤, 고구마, 브로콜리 등을 챙겨먹는 게 좋다. 또 평소에 다량의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Coffee)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차(茶)를 마시는 게 몸에 좋다.

사람의 체온은 보통 36.5℃를 유지한다. 그러나 다른 동물의 체온은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말(馬)은 37.7℃, 소와 개는 38.5℃, 닭은 41.5℃, 양(羊)은 29.0℃, 고양이는 38.1℃이다.

사람의 체온이 1℃ 내려갈 경우에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 목은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신진대사력은 12%가 떨어진다.

반면에 체온이 1℃ 상승하면 면역력은 50%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항하는 인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온열요법이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도 나쁘지만 18~21℃가 실내 최적 온도이다. 날씨가 춥다고 온도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실내 온도가 25℃ 이상이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내 온도가 약간 춥다고 느낄 정도인 18~21℃가 최적 온도이다.

또한 하루에 3번 정도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환기를 해야 한다. 매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겨울철 실내 온도(15~20℃)만큼 중요한 게 실내 습도다. 보통 50~70% 습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속에 수분이 충분해야만 인체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음식 맛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가 음식의 온도이다.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는 15℃이며 커피나 홍차는 65℃이다.

맥주는 4℃일 때가 가장 맛이 있다. 청주는 50℃, 된장국은 60℃, 송농은 70℃, 어린아기용 우유는 37℃이다. 냉수는 13℃가 가장 맛이 있으며 우물물도 13℃이다. 아이스크림은 -12℃일 때가 가장 맛이 있다.

건강 이야기에 ‘기운 기(氣)’란 글자가 빠질 수 없다. 기(氣)는 예로부터 인체 내에는 물론이고 우주 만물에 존재되어 있는 일종의 에너지이다.

우리 민족은 일상생활에서 그 실체를 과

약하여 사용해 왔다. ‘기(氣)’란 글자에 쌀(米)자가 들어 있듯이 사람은 밥(米)을 먹어야만 기운(氣運)이 난다.

예로부터 “밥이 보약(補藥)이다”란 말에 수긍이 간다.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생기(生氣)’가 있는 것이며 젊음이 좋은 것은 ‘혈기(血氣)’가 넘치기 때문이다.

남들이 머뭇거릴 때 앞장 서는 것은 ‘용기(勇氣)’가 있는 것이며, 적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기(決氣)’가 있기 때문이다.

힘이 있어야 기운(氣運)이 나며 힘이 없으면 ‘원기(元氣)’가 부족하다. ‘용기(勇氣)’ 있는 사람은 기백(氣魄), 기개(氣概)가 있다. ‘사기(士氣)’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오를 정도로 ‘기(氣)’가 충천하여 공중으로 만(萬) 길(길이의 단위,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이나 높아졌다는 말이 바로 ‘기고만장(氣高萬丈)’이다.

‘기분(氣分)’이라는 것은 인체 내 기(氣)의 분배를 말한다. 에너지가 몸속을 잘 순환해서 분배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운이 막히면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 기가 막히면 기절(氣絶)하게 된다. 기(氣)를 쓰고 달려들면 기진맥진(氣盡脈盡)하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운을 받으면 ‘인기(人氣)’가 올라간다. 태권도나 유도 경기에서 기를 모으는 것이 ‘기합(氣合)’이다.

‘방귀 핀다’의 ‘방귀’는 ‘방기(放氣)’가 변한 말이다. ‘나쁜 기를 (몸 밖으로)내 놓는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방귀를 끼지만 소도 방귀를 끼는데 대기질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고 한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온도차가 커 몸이 온도에 대해 면역이나 컨디션이 나쁘면 어김없이 ‘느낄 감(感)+기운 기(氣)’자의 ‘감기(感氣)’가 찾아오는데 ‘기(氣)를 느끼는 게 감해졌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 해서 ‘음식이 곧 약’이라고 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다. 건강의 근원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임을 새롭게 재인식하면 좋겠다.

끝으로 다른 생물을 숙주로 삼아 전염되는 ‘바이러스(Virus, 라틴어로 독이란 뜻)’와 미세하고 하등(下等)에 속하는 단세포로서 핵(核)은 없고 세포막이 있어 자체적으로 증식이 가능한 ‘박테리아(Bacteria)’는 청결한 곳에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불결한 곳에서만 생식한다.

따라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각종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높이자. 그러면 코로나19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을 늘 깨끗하게 만들자.

위 내용은 지 문표 의학박사의 특별 자문과 감수를 받았다.//

체온과 건강 그리고 면역력

전대길 (병 176기(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우리는 가장 덜 아플 때가 가장 완벽하게 건강한 때임을 잘 모른다”고 프랑스 사상가, ‘미셀 몽테뉴(Michel Montaigne, 1533~

1592)’가 말했다. ‘건강(健康)’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말한다. ‘튼튼한 건(健)’은 ‘육체적 건강’을 ‘편안할 강(康)’자는 ‘정신적 건강’을 뜻하기 때문이다.

2020년을 맞아 세상에 창궐하는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대의 학이 고도로 발전했지만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인 면역을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 백신(Vaccine)을 개발하지 못하고 돌파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체에 나타나는 9가지 현상이다.

1. 외부자극에 쉽게 염증이 발생한다.
2.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긴다.
3. 업무량이 많지 않아도 피로도가 높고 몸이 무거움을 느낀다.

4.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5. 헛바늘이 돋는다.

6. 감기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으며 비염이 생길 수 있다.

7. 장(腸)트러블, 배탈이나 설사 증세가 자주 발생하며 오래 간다.

8. 면역력 이상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생길 수 있다.

9. 대상포진이나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Trouble)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생활)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신체 활동이 저하되면 근육량이 줄어들며 자연적으로 근력이 떨어진다. 이는 비만으로 연결되어 면역세포 생성과 활동이 저하한다. 따라서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둘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셋째, 체온이 1도가 높아질 때마다 면역력이 50% 이상 높아진다. 평소에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반신욕을 자주 한다.

넷째, 찬 음식은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

불교의 탄생

채낙호 (예 준위, 준사관 28기, 광주지부 고문)



지금의 인도와 네팔 국경 부근 히말라야 산기슭에 작은 나라가 있었다. 기원전 563년 음력 4월 8일 이 나라의 왕 비었던 마야 부인은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네팔의

룸비나라는 곳을 지나가다 아름다운 호수를 만났다. 그 호수에서 몸을 씻고 잠시 쉬는 사이 갑자기 진통이 찾아와 마야 부인은 나무 아래서 아들 고타마 싯다르타를 낳았다. 이 아이는 먼 훗날 ‘깨달음을 얻는 자’라는 뜻의 ‘부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비(慈悲)와 평등(平等)의 종교 불교(佛敎)를 만들었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어날 무렵 철기 문화가 발달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였다. 철로 만든 무기가 발달하면서 전쟁이 잦아지고 크샤트리아 계급이 활약하기 시작했다. 바이샤 계급은 철기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고 남는 물건들은 팔아서 상업도 발달했다.

바이샤 계급이 바친 막대한 세금으로 크샤트리아는 전쟁을 하고 나라의 조직을 만들어 왕과 귀족이 되었다. 두 계급은 서로 힘을 합쳐서 상업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수행(修行)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고타마 싯다르타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니,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야만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解脫)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신분 차별에 반대하고 자비와 지혜를 강조했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석가모니(釋迦牟尼), 산스크리트어로 붓다(Buddha,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도 불렀고 바로 부처님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신분 때문에 차별받았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불교를 무척 반겼다. 브라만의 권위에 불만을 갖고 있던 크샤트리아도 매우 환영했다.

형식적인 제사 의식에 저항하던 바이샤도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

정치와 경제가 발달하면서 성장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의 성장은 불교의 성장과 함께했다.

현재의 인도는 불교 국가는 아니지만 불교의 등장은 인도를 사상과 종교철학, 문화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불교가 탄생한 지 300여년이 흐른 후 인도 땅에 찬드라굽타가 세운 ‘마우리아’라는 통일왕국이 처음 들어섰다. 인도 남동쪽 칼링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모두 통일했다.

그리고 제3대 왕인 아소카는 이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100여명의 형제와 권력 다툼을 벌였고 99명의 형제를 살해한 끝에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

아소카는 왕이 된 후 영토를 넓히고자 칼링가를 점령하기 위해 70여만명의 병력과 코끼리 9,000여마리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 10여만명이 죽고 15만여명이 포로가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아소카는 칼링가 전투를 계기로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비(慈悲)’와 ‘평화(平和)’라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소카가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인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생명을 살리고자 사람과 동물을 위한 병원이 세워지고, 육식이 금지되었으며 각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고 여행자를 위한 숙소도 생겼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도 들어섰다. 길에는 과일나무를 심어 언제든지 나그네가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곳곳의 우물과 저수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백성들에게 강조했다.

아소카 왕은 이러한 내용을 절벽의 바위나 돌기둥에 새겨 널리 알리도록 했다.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수십 개의 돌기둥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르나트에 세운 사자 장식 돌기둥은 오늘날 인도의 상징이 될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또한 부처와 관련된 유적지를 순례하고 돌기둥을 세웠다.

오랜 세월 방치된 롬비나가 부처의 탄생지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아소카 왕이 세운 돌기둥 덕분이었다.

그는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찾아내 8만 4,000개로 나누어 각 지역에 전하고 사리를 보관하는 스투파(탑)를 곳곳에 세웠다. 그리고 불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지중해 주변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등으로 파견했다.

아소카 왕의 아들과 딸이 동남아시아의 실론(지금의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하면서 미얀마, 태국까지 불교가 퍼져 나갔다. 욕심을 버리고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 교리에 아소카 왕의 노력이 더해져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때 잔인한 왕의 상징이던 아소카는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왕이 되었다. 지금도 많은 인도 사람들이 아소카 왕을 인도를 대표하는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위대한 왕을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고 부르는데 아소카는 속세(俗世, 불교에서 일반사회를 이르는 말)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아소카 왕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우리아 왕국은 멸망하지만 불교는 계속해서 퍼져 나갔다. 이후에 들어선 쿠산 왕국의 카니슈카 왕은 비단길을 따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불교를 전파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의 일이다. 삼국의 왕권이 아직 강하지 못하고 백성은 해와 달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현상을 훨씬 두려워하던 때였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준 높은 종교가 필요했고 왕의 권위를 세워줄 이론이 필요했다.

4세기에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고 신라는 6세기에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삼국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은 곧 부처”라는 불교 사상으로 왕권을 강하게 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한편 문화의 수준도 높아졌다.

금년은 부처님이 오신지 불기 2564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매년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지키며 이날 연등행렬, 법회,放生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5월 30일로 연기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연등축제(燃燈祝祭)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민속놀이와도 결합해 전통문화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불교와 관련된 유적지가 많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유적지라면 경주 석굴암(石窟庵)을 꼽을 수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석굴암은 서기 750년경 신라 경덕왕 시대에 지어졌는데 당시의 건축 기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된 세계 유일의 인조 석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안호원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방송인)



황금쥐띠인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 듯 봄소식이 소리 소문도 없이 내게 다가왔다.

봄이 왔다. 봄의 시작은 갖가지 꽃으로 알려진다. 남녘에서부터 개나리가 섰노란 옷을 입고 싱긋 눈웃음치며, 유혹을 하고. 또 분홍빛 진달래가 뒤질세라 그 뒤를 바짝 따라 숨차게 달려왔다.

그리고 4월 초쯤 거리를 뒤덮은 벚꽃에 온 세상이 벚락 치듯, 환해져 겨울잠에서 깨어난 중생(衆生)들의 눈을 화들짝 놀라게 했다.

여기에 ‘백만 축 달빛’ 같은 목련화까지 만개(滿開)하여, 그야말로 우리 가슴은 봄의 절정으로 치닫게 되었다.

봄꽃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을 밝히는 빛(光)이자 사랑(love)과 연민(憐憫)이다. 그러나 빛이자 사랑과 연민을 상징하는 꽃향기도 잠시 뿐이다.

봄꽃 소식이 바람을 타고 전해왔지만, 올해의 꽃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코로 푼다.’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괴물’로 겪고 있는 고통과 걱정과 혼란에 묻힌 느낌이다. 그 같은 괴물이 온 세상을 점령한 것 같아 무섭고 우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렇수록 강물이 멀리 흘러가는 것을 보듯 이 시간의 흘러감을 조금은 담담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 어려움이 있다 해도 반드시 끝은 있게 마련이다. 혹독한 추위의 지속을 봄꽃이 오래 감내하듯 근경을 맞고 있는 우리도 멀리 바라보아서 조금하고 불안한 당장의 마음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달 전부터 눈만 떴다하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 우울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카 톡’이나 ‘페이스 북’에서 조차 가짜뉴스까지 범람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고향 친구가 카톡으로 사진 몇 장을 필자에게 보내왔다. 무심코 열어보니 나무가 우거진 산길사이로 청명한 하늘과 회색빛 구름이 보이는 사진이다. 댓글도 없는 사진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 확진자가 또 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침울한 기분이었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아! 봄이 왔구나. 그리고 보니 오늘 날씨가 무척 맑은 게, 따뜻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졌다.

문득 창밖을 보고 싶어져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싱그러운 봄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다. 구름 한 점 없이 해맑은 푸른 하늘도 감상해 보았다.

더불어 봄을 재촉이라도 하는 햇살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느껴보았다. 그러자 순간에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다.

외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안부를 묻는 문자도 많이 받았다. 필자 역시 친구나 지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대다수 지인들은 언제쯤 괴질(怪疾)이 사라지고, 평온해질지 끝이 보이지 않

는다며 불안해했다.

어떤 이들은 전염이 될까 두려워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마치 ‘자가 격리’된 기분이라며 씁쓸해했다.

학교도 등교를 미룬 상태다. 예정된 집회의 강연이나 교회 예배도 하나같이 모두 취소되거나 무기 연기되었다. 단체들의 정기모임도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마치 도시가 유령의 도시가 된 것처럼 한산하고 흑 거리를 나선 사람들 모두에는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마치 인생이란 학교에서 내 잘못도 아닌데 정확처분을 받고 집에 갇혀있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대기발령을 받고 있다고나 할까?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 착잡한 기분이 든다. 우리는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외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침착하게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암튼 중국 발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국가적인 위기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 국민에게 남겼다. 초기에 정부 대처가 미약하기는 했지만, 뒤늦게나마 나름 노력을 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국민은 독재국가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그보다 더 훨씬 값비싼 교훈은 무엇보다도 국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현 정부는 국정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언론, 그리고 ‘신천지’에 돌리고 싶겠지만,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국정 운영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싶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사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견잡을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그러한 정부에 대한 불안은 ‘마스크 대란’으로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마스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던 정부가 고작 내놓은 건 신분증을 제시하는 5부제는 국민을 몇 시간씩 줄을 세우고 허탕 치게 하는 무능한 관료들, 국가적 위기를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매일 새로운 소란 연출하는 교활한 정치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정 국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지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기의 교훈은 대외정책에서도 드러났다. 마치 문 대통령의 보건 분야 협력제안에 ‘조’를 치듯 발사체를 쏘아올린 북한의 변하지 않은 참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신뢰를 유지한 국가도 있지만, 온갖 불합리하고 몰염치로 국민을 불편하게 한 국가들도 생겼다.

이로서 우리 어떤 국가가 신뢰할 만한 진정한 동맹국이고, 어떤 국가가 배은망덕한 지를 여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언젠가 계절이 바뀌듯 위근 상처와 교훈을 남기고 끝난다.

대부분의 나라가 인정했듯 한국은 누가 뭐라 해도 선진국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의료수준과 시스템을 가진 국가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탓을 하고 싶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치

솟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민 정신을 보여주는 따끈한 이웃소식도 있고, 위기의 현장에서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특히 이들을 위해 대구시장 상인들이 팔을 거뒀 도시락을 열심히 만드는 모습, 또 손 소독제, 생필품을 어떻게 하든 구해서 대구 병원이나 경북 취약계층에 보내는 아름다운 마음, 감동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불안이 엄습하고 있는 올 봄은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과거 사스, 메르스도 다 이겨낸 우리 국민이 아니던가. 공동체 사랑의 도도한 물살로 못된 괴물을 깨닫고 쓸어버리자. 제 아무리 세 보이는 코로나라도 북풍한설을 뚫고 인고 끝에 다가온 봄꽃 속 따뜻한 사랑에는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계절적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 19에 두려워 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충분히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국민이다.

정부를 믿어보자. 그리고 모쪼록 코로나 19사태가 알려준 불편한 교훈들이 우리들 마음에 소중하게 기억되어지기를 희망한다. “힘내라 대한민국!”

작금에도 딱 들어맞는 처방이다. 응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기회에 친구와의 소소한 만남이 그리운 분이라면 문자 대신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나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시간이 없어 미뤘던 집안 정리도 이참에 해두는 것도 좋을 듯싶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에는 봄에 밀려나듯 이번 시련도 머지않아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날 때 마다 핸드폰 대신에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봄철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그리운 이를 생각해보자.//

각해보니 금강산, 설악산, 치악산, 인왕산, 관악산 등, 우리나라 명산이란 명산은 모두 돌이 많음을 깨달았다.

정년전역을 하면서 계룡산이 좋아 어릴 적 고향과, 젊음의 세월 다 보냈던 서울도 버리고 계룡산 언저리에 마지막 삶의 동지를 틀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이

흘쩍 지났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산, 계룡산이 금년에도 겨울의 하얀 살점들을 녹여 내리며 꽃을 피우며 봄을 잉태하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속세를 비워내는 비구니스님의 염불소리에 세월의 바퀴를 돌린다.//

하늘에 오른 올챙이

한인에 (김병환 전황성회장가족, 산영문학회회원)



예비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밥상을 받던 날 나는 너무 기뻐 눈시울이 젖었다. 비록 카레라이프였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성으로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 본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홉 살 때부터가. 생계를 위해 바쁜 홀 어머니를 도와 나는 부엌일을 시작했다. 결혼 후에는 몸이 몹시 아플 때도 남편과 자식들에게 끼니 한 번 거르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반세기가 넘도록 밥을 짓고 반찬만 들고 식기 세척을 하다 보니 이젠 주방 일이 하기 싫다. 안 먹고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그런 내게 예비며느리의 첫밥상은 큰 감동이었다. 며느리에게 매일 밥상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더욱 기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식사를 마친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뽕꿍 구경 가요.” 남편과 나는 아들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에서 가까운 여의도로 갔다. 여의도는 벚꽃축제가 한창이었다. 새아기를 맞게 된 나를 축하하러도 하는 양 벚나무마다 화사한 꽃이 흐드러졌다. 꽃놀이 나온 사람들도 환상적인 꽃빛에 물든 것 같았다. 우리도 그들처럼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살면서 내 팔짱을 낀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하늘에 연(鳶)들이 올챙이 같아요.” 과연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은 맑은 시냇물이고, 연들은 넓은 시냇물에서 한가로이 유영하는 올챙이들 같지 않은가.

올챙이가 어찌 하늘에 오를 수 있으리. 그런데 사랑스런 며느리는 연을 올챙이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았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연들은 정말 생명을 가진 올챙이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의 심심이 그만큼 긍정적이며 따뜻한 거라고 짐작되는 일이었다. 몇 해 전에 든든한 사위를 보고 또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된 나는 분명 복 받은 사람이다.

올챙이들이 하늘에 오른다면 물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세상에 가슴 벅찰 것이다. 예비며느리에게 첫 밥상을 받고 감격한 것처럼.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축제의 거리를 거닐며 기쁨으로 벅찬 나처럼 말이다. 그래, 나도 하늘에 오른 올챙이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며 마음속으로 활짝 핀 꽃처럼 미소 지었다. 이처럼 기쁜 날 우쭐해 보지 않으면 언제 하리. 아버지 없이 외롭고 서럽게 자란 내가 어엿한 가정을 이뤄 아들딸을 명문대에 보냈다. 그게 내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자식들을 위해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며 실천하는 기도였다.

S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기쁨에 떨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는 아들을 장원급제라도 시킨 것 같았고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았다.

아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하니 그야말로 조건 좋은 중매가 줄을 섰다. 그 때문에 나는 욕심을 갖게 되었다. 내 아들도 누구들 처럼 열심히 하나쯤은 받을 것이고 그들의 어머니들처럼 나도 예단 받을 때 보석이나 명품 선물 하나는 받을 거라는 속된 꿈을 꾸게 된 것이다. 이 여자의 마음이란 얼마나 알파하고 어리석은가. 다 부질없는 것을 바라다니...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들 부부가 그야말로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낱 종이로 만든 연들도 생명체처럼 보는 며느리가 보잘것없는 이 시어미에게도 죽는 날까지 다정한 마음으로 대해준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오늘은 우리가 벚꽃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자식들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본다. 딸의 결혼식에서도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나는 담담한 미소만 짓고 있다. 내 목숨 같은 자식들을 남에게 주는 날인데 남의 귀한 자식들을 내 자식으로 맞는 날인데 어찌 만감의 눈물이 솟지 않을까마는 나는 꼭 참고 있다.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홀 어머니와도 헤어져 자란 서러움이 거센 바람을 만난 강물처럼 가슴속에 출렁였지만 담담한 얼굴로 식을 마쳤다. 풍랑의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기쁨과 슬픔의 파도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사소한 일에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던 나다. 그런데 정작 중대한 일에서는 마음이 강해지는 모양이다. 그런 면이 오늘날 내가 하늘에 오른 올챙이가 될 수 있게 해 준 것이 아닐까.

아무튼 내 자식이 되어 준 며느리가 마냥 소중하다. 내 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들 역시 제 아 나를 항상 처음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잘 살아 주는 것이 현대의 효도라 하지 않는가.

연을 연으로만 보아온 나는 며느리가 내 팔짱을 끼었을 때와 연을 올챙이 같다고 말했다 할 때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가슴 가득해 지던 기억을 해낸다. 세상이 변해도 그 마음 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살다보면 서로 오해하고 서운하고 야속할 때도 많을 것이다.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리라 마음을 다잡으며 가만히 사진첩을 덮는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아자!! 나는 하늘에 오른 올챙이다. 모든 어머니들도 하늘에 오른 올챙이다.//

봄꽃 다시 피다

김완용 (예 준위, 준서관 58기, 한국공무원문학회장)



만 산자락에 희끗 희끗 남아 있던 겨울의 마지막 살점들이 녹아내리면, 산과 들녘은 새 생명들의 몸짓이 분주해진다.

산벚나무 꽃잎 흩날린 계곡마다 달이 뜨는 밤, 하얀 영당이 까고 앉아 소피보는 조팝꽃이 아름답다.

꽃이 피는 새로운 계절, 봄은 산과 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도 설레게 한다.

봄바람처럼 잊었던 동무도, 철었던 시절의 첫사랑도, 돌아와 가슴을 휘저어 놓는다. 더러는 인연의 끈을 놓고 지나쳐간 지난날들이 기억의 각질을 벗겨 놓기도 한다.

나는 정년퇴직을 13년 앞두고 마지막 근무지로 서울에서 계룡산 밑 허허벌판으로 이전을 해왔다. 서울의 빌딩숲을 대신해서 계룡대는 청정지역을 떠나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새 생명들의 현장이었다.

620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처음으로 공군본부 이전계획 팀을 버스에 가득 싣고 계룡대지역을 답사하러 왔을 때에는 계룡대본 청건물 지상 2층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미 십여 년째 종교집단들이 떠나고 그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방치해둔 계곡마다에는 들쭉들이 마치 참새 떼처럼 날았다.

공사현장사무소로 사용하였던 신도안면 사무소자리(이전 후 근화원 자리)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경관은 계룡산의 아름다움 하나 빼고는 황무지와 같았다. 그러한 황무지에 개척자가 되어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먼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의 교육문제가 걱정이 되었다.

막막한 근심 때문이었는지 작달막한 체구에 얼굴이 봄빛에 검게 타버린 현장사무소장(육군 준장)의 카랑카랑한 브리핑은 귓전에 와 닿지 않았다. 다만 1년 후 이곳에 어떻게 와서 살아갈 것인가가 걱정뿐이었다.

그 후 이전 준비로 마음들이 들떠 있던 1987년 여름 계룡대지역 대홍수로 이전계획되었던 1988년 보다 1년 늦은 1989년 7월 9일 새벽 정들었던 서울을 떠나게 되었다.

계룡대는 군사적으로 보면 요지였다. 북

으로 천황봉을 등졌고, 남으로 금강의 지류를 끼고 평야가 시작되는 곳이다.

한 때 《역사와 수필》이라는 계간문학지에 계룡산에 관한 수필 한 편을 상재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태조 2년에 신도안에 천도의 꿈을 안고 주춧돌을 깎기 시작했으나, 회룡고조(回龍顧祖)의 세로 ‘수과장생 쇄패입지(水破長生 衰敗立至)’의 땅이라고 하는 중국의 호씨설(胡氏說)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 되었다. 그러나 훗날 ‘도선비결(道誡秘訣)’과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정감록’ 등으로 많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란으로 100여 개의 종교집단들이 몰려들어 종교백화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계룡산골짜기마다 종교인들이 점거하고 살았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행정수도부지로 거론 되는 등 계룡산은 분명 명산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계룡산은 도돌이표 찍고 사회인으로 되돌아가는 나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 현역시절 사무실에서 바라보면 매일 달라지는 계룡산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봄이면 밑에서부터 파란 물감의 높이가 올라가고, 가을이면 위에서부터 오색의 단풍이 떨어져 내려오는 한 폭의 풍경화를 신의조화처럼 매일 연출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우리부부는 언제나 도시락을 싸들고 계룡산을 올라갔다. 천황봉을 중심으로 국사봉, 연천봉, 관음봉, 삼불봉, 문필봉, 장군봉 등 계룡산 일원을 할 일 없이 돌고 돌았다.

또한 자주 찾아가는 사찰로 봄이면 늙은 왕벚나무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는 계곡끝 자락 비구니스님들이 공부하는 동학사와, 서쪽의 천년고찰 갑사, 그리고 남쪽으로 마곡사의 말사인 신원사가 있다. 모두 고찰이면서도 의미 있는 사찰들이다. 글을 쓰는 나에게 역사적의미를 담고 있는 사찰들은 작품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계룡산은 항상 생각의 다리를 놓는 시인에게 잊혀진 과거를 돌려주었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명산이었다. 한 선배의 부인은 등산을 동행하던 중에 계룡산이 명산인 까닭은 돌이 많아 명산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박장대소를 금치 못했으나 가만히 생